

고용허가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 「외국인 고용허가제 20주년 백서」 발간 -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올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외국인 고용허가제 20주년 백서」를 발간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장이 비전문 외국인력(E-9, H-2 비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2004년 8월 17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함께 시행되었다.

고용허가제 도입 당시 6개 국가였던 송출국은 현재 17개국이 되었고,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으로 출발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가능 업종도 어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까지 확대되었다. 안정된 제도 운영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근로자(E-9)는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 상반기 누적 입국 인원이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허가제는 발전을 거듭해 왔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20주년 백서」에는 제도 도입 배경, 도입 초기 모습과 발전 과정, 미래에 대한 조명까지 상세히 담겨 있다. 제도 발전사와 함께 현장의 이야기도 비중 있게 다루었다. 제도 시행 첫째 입국했던 외국인 근로자의 근황, 고용허가제를 활용한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의 소감, 제도 설계와 운영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해 온 담당자들과의 인터뷰 등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생생한 목소리가 다수 수록되어 있다.

김문수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고용허가제는 국가 간 인력 활용의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고, 국제적으로도 성공적인 이주노동 정책으로 인정받고 있다”라면서 “앞으로 업종과 직종의 확대, 숙련인력의 장기체류 지원 등 고용허가제가 현장 요구에 맞게 변화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 「외국인 고용허가제 20주년 백서」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담당 부서	국제협력관 외국인력지원과	책임자	과 장	윤혜영 (044-202-7755)
		담당자	사무관	유연희 (044-202-7158)
			주무관	조형원 (044-202-7155)
담당 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기획부	책임자	부 장	권기승 (052-714-8541)
		담당자	차 장	김규범 (052-714-8544)



■ 고용허가제 최초 입국자: 노네임 핑고이(필리핀)

2004년 8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텔레비전으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망설임 없이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가장 큰 이유는 급여가 높았기 때문이었죠. 한국에 와서 4년간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휴대폰 케이스 조립 회사에서 일했는데, 당시 사장님은 저 같은 외국인 근로자뿐 아니라 모든 직원에게 친절하고 자상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캐나다에서 약사로 일하고 있지만, 종종 그때의 경험을 즐거운 추억으로 떠올리곤 합니다. 고용허가제는 저에게 좋은 기회와 훌륭한 경험을 선사해 주었고, 제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첫 번째 근로자에 속한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 고용허가제 활용 사업장: (주)진하(경남 양산시)

우리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어요. 업무 강도가 세고, 교대 근무가 필수라서 직원 구하기가 항상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었죠. 처음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근로자들을 만났을 때 생각보다 마른 체격을 보고 잘 버틸 수 있을까 싶었으나 걱정과 달리 특유의 근성으로 성실하게 일해주더군요.

우리 회사는 내외국인 근로자를 동등하게 대우합니다. '나'가 아닌 '우리'라는 생각으로 동료이자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요. 문화와 언어가 달라 함께 어울리기 어려울 수 있지만, 서로 노력한다면 멋진 직원, 훌륭한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처럼 말이죠. 지금도 밤낮으로 생산라인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인도네시아, 필리핀 직원들에게 '파이팅!'이라고 외쳐봅니다.

■ 고용허가제 근로자: 마은 하린(미얀마)

2000년 미얀마에는 '겨울연가', '풀하우스' 등 한류 드라마 열풍이 대단했습니다. 어린 시절 본 그때의 한국 드라마는 저의 로망이었고, 한국에 가야겠다는 꿈의 시작이었습니다.

2013년 결국 한국에 왔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소년 시절 꿈을 생각하며 곳곳이 근무했습니다. 재입국 특례 대상으로 다시 한국을 찾은 후부터 미얀마 근로자를 도와주는 통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와 이웃을 도우며 살고 싶다는 생각에 올해 초부터 충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정식 통역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로 꿈을 꾸던 소년에서 미얀마 동료들의 문제 해결을 천직으로 여기게 된 저의 또 다른 인생을 응원해 주세요.

■ 외국인력상담센터(외국인근로자 전용 콜센터) 서소영 팀장

외국인력상담센터가 생긴 2011년부터 지금까지 외국인 상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없지 않았고, 문화가 달라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로 놀라는 일도 꽤 많았습니다. 이제 편견은 거의 사라졌고, 문화적 차이로 크게 놀라는 경우도 없어진 것 같습니다.

상담 내용은 일상의 불편부터 사업장 내 갈등, 복잡한 보험제도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뭐 이런 것까지 우리에게 물어보나' 싶다가도 '언어 소통이 안 되고 제도를 이해하기 어려우니 하소연할 데가 여기밖에 없겠구나'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 상담원들은 하나라도 더 알려 주려고 노력하는 거죠.

대단하진 않아도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는 과정에 징검다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